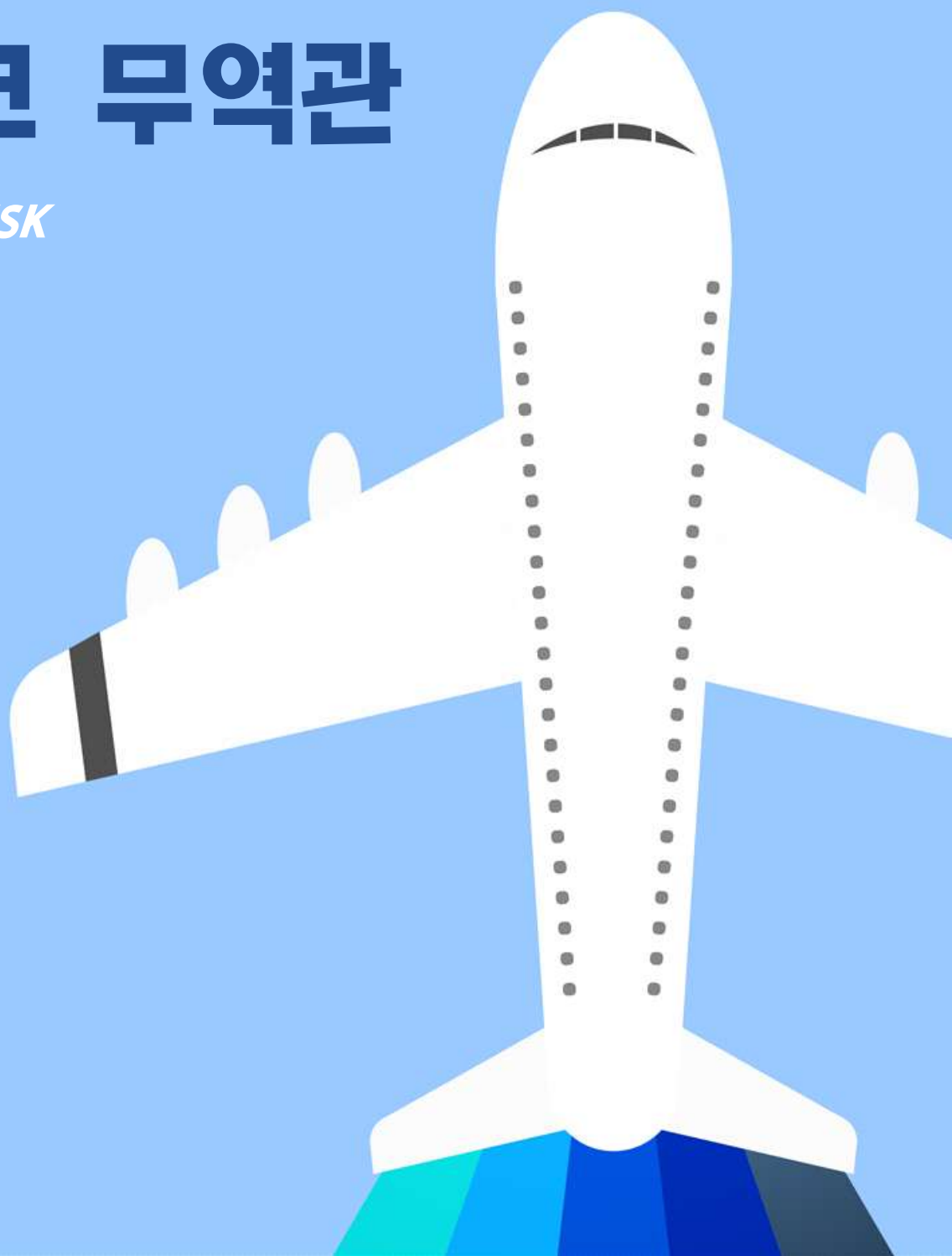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벨라루스

민스크 무역관

KOTRA MINSK



목 차

I. 상담 유의사항	1
II. 벨라루스 개요	6
III. 벨라루스 경제·무역동향	12
IV. 한국-벨라루스 관계	16
V.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19
VI. 민스크 시내 주요 식당 정보	22
VII. 주요 명소 및 기념품	24
VIII. 무역관 오시는 길 및 연락처	31

I. 상담 유의사항

□ 제조사는 제조업체임을 강조할 필요 있음

- 현지 수입상/도매상은 제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을 감안하여, 제조사는 제조업체임을 강조할 필요 있음

□ 처음부터 많은 물량의 오더 기대는 금물

- 벨라루스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영세하며, 러시아 수입업체나 딜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업체도 있음. 최초 거래 시 MOQ에 미달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재의 경우 현지 중산층 이하 서민의 소비수준 고려 시, 소량 주문부터 시작하는 경향
- 그러나 시장경쟁이 덜하고 직수입을 통한 수익 극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적은 물량이라도 초기에 성실하게 대응하면 일정 시점이 지나 고정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큼
-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자본력이 약하거나, 소규모 바이어일 경우엔 통관 능력이 없어 제품을 수입하고 싶어도 못 하기도 함

□ 벨라루스 바이어와의 직거래 활성화 필요

-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엄연히 다른 시장이므로, 직거래 활성화 필요
 - 벨라루스에 수요는 있지만, 오더가 많지 않은 제품의 경우, 러시아 내에 있는 딜러가 벨라루스까지 판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러시아 바이어는 벨라루스까지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커버가 되더라도 벨라루스 디스트리뷰터 입장에서는 러시아 바이어가 중간 마진을 붙여 제품을 공급하게 되므로 러시아보다 가격이 높아져 높은 단가로 인해 다량 주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벨라루스는 러시아보다 국민 평균 소득수준이 낮아 러시아보다 더 좋은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현상으로 같은 제품인데도 오히려 벨라루스에서 더 비싸게 판매가 되어 판매실적 저조가 발생하기도 함

□ 대금 결제조건 관련 벨라루스 바이어 특성

- 벨라루스는 만성 외환부족 국가로 외환통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바이어가 수입대금으로 외화 확보 시, 정부에 신청서류 작성 등 불편한 점이 많음
 - 송금 후 90일 이내 제품이 벨라루스에 들어와야 함. 이에 많은 바이어들이 D/A, D/P (외상)거래를 종종 요구해 당혹스러운 경우가 종종 발생
- 우리 기업의 경우, 50% 미만에서 T/T 선지급을 하고, B/L을 바이어에게 보내면서 잔금 지급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 제품 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신용장 거래를 하는 바이어도 있으나, 주거래 국내은행에 확인 절차 필요
 - 벨라루스는 신용도가 금융계에서 낮은 편이며, 최근 서방의 경제제재 등으로 상당수 국내은행이 벨라루스 은행이 발생하는 L/C 수취 거절 사례가 빈번
- 수입기업이 수입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입 제품이 벨라루스에 도착해야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데, 만약 90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매일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
 - 실제로 한국에서 벨라루스로 제품 운송 기간은 대부분 90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LCL의 경우 간혹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

□ 물품 인도조건 관련 벨라루스 바이어 특성

- 경험에 의하면, 벨라루스 바이어들은 FOB, CIF 보다 CIP 조건을 선호
 - 벨라루스는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CIF보다 CIP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음
 - 현지 업체 중에는 제품운송 등에 아직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들이 있으므로 가격 준비 시 FOB, CIF, CIP 모두 준비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 필요
- 수입 경험이 많은 수입상 또는 현지 제조사 등 규모가 있는 바이어들은 FOB 또는 EXW를 물품 인도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비교적 많음
 - 수입 물량이 많으므로, 자가가 거래하고 있는 물류회사 등을 직접 선정하여 이용하는 성향이 강하며, 세관과 커넥션이 있어 비교적 쉽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FOB 및 EXW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기도 함

- 비교적 규모가 작은 수입상이거나 국영기업의 경우, CIP 조건을 내걸고 본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이 있음
 - 바이어 입장에서 부담은 적지만, 벨라루스로의 수출경험이 적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조건이 될 수 있음
 - 바이어가 CIP 조건을 내세울 때는 통관에 있어 바이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상호 조율할 필요도 있음

□ 현지 인증 취득은 필수

- 벨라루스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벨라루스 품질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품질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 바이어와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3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 이후 2015년부터 EAC(Eurasian Conformity) 인증제도 시행(개편) 중으로 동 인증 획득 시 EAEU 5개국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제품별로 각국의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일부 품목의 안전도 검사 등 벨라루스 법규에 의해 수입상품에 대한 증빙서 첨부이 필수적인데 각종 증빙서 입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 등에 삽입하는 것이 좋음. 모델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EAC인증은 기존의 GOST-R 등 각 개별국가가 운영하고 있던 인증과 마찬가지로 적합성 인증서(CoC)와 적합성 선언서(DoC)로 구분됨
 - CoC는 일부 기계류, 크레인, 엘리베이터, 수공구류, 테스트 장비 등 제품에 해당하며 공장심사가 필요함
 - DoC는 화장품, 소비재 등 위험성이 적은 제품이 대부분 해당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서류심사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함
- 한국 내 EAEU 및 각국 인증 관련 검사·시험 전문기관 확인 요망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1381(인증표준 콜센터, www.1381call.kr), Sercons코리아(www.sercons.co.kr) 등
 - 벨라루스 인증등록을 관할하는 현지기관은 BelGISS(<https://belgiss.by>)임

□ 한국 → 벨라루스 주요 수출 루트

- **해상운송:** 벨라루스는 내륙국가이므로, 인근국인 리투아니아 또는 라트비아 항구를 통해 해상운송 제품이 반입됨 (제품에 따라, 비용은 상이)
 - 부산 → 유럽(암스테르담 등) → 클라이페다(리투아니아)/리가(라트비아) → 민스크
 -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아존 물량 집중과 이에 따른 컨테이너의 부족으로 인해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4~5배 이상 크게 상승. 참고로 물류대란 이전에는 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소 차이 나지만 통상 한국에서 클라이페다 및 리가까지 FCL 20피트 컨테이너는 약 2,000달러, 40피트 컨테이너는 약 2,500달러 정도 운송비가 부과되었음. 이에 운임을 포함한 조건으로 바이어와 계약 시에는 사전에 국내 물류회사에 문의 후 최종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권장됨
- **항공운송:** 한국⇔벨라루스 간 직항이 없는 관계로, 항공편을 통해 벨라루스로 제품을 보낼 경우, 주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운반됨
 - 20kg 미만의 제품일 경우, 통상 EMS 등을 활용한 항공운송을 추천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부터 EMS는 잠정서비스 중단되었으며, 그나마 EMS 프리미엄(UPS) 및 DHL, Fedex, TNT 같은 특사 우편은 이용가능했으나,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엔 특사 우편마저 중단됨

□ 벨라루스, 벨로루시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 벨라루스(Belarus) 사람들은 자국을 벨로루시(Belorussia, 백러시아)라고 외부에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함
 - 소련시절 연방의 일부분으로서 벨로루시라 불렸으며, 지금도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속국처럼 취급하여 벨로루시라고 부르는데, 벨라루스는 1992년 독립하면서 ‘벨라’(하얀, 순수한) ‘루스’(동슬라브계 루스민족)로 별개의 민족국가로서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 중임
- 바이어를 만나면 ‘벨로루시’라 하지 마시고 ‘벨라루스’라 하시기를 권함
 -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나, 벨로루시 라고 하면 벨라루스인 입장에서 마치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또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한국인을 조선진,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임

〈 현지 입국 및 통관 시 유의 사항 〉

※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를 통해 벨라루스 입국 시 무비자 30일 체류 가능

- * 2017.2.12부터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시행
- * 30일은 벨라루스 입국일, 출국일을 포함하여 캘린더데일로 30일 의미
- * 연간 합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

1. 무비자 30일 체류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니 아래 조건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경로에 "벨라루스→러시아" 또는 "러시아→벨라루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벨라루스 비자가 필요
 - 육로를 통해 벨라루스 출입국을 하는 경우 벨라루스 비자가 필요
 - 주의: 벨라루스-러시아 간 육로이동은 무조건 불가능
 -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벨라루스로 입국하는 경우만 무비자 30일 체류 가능

※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불가(30일 초과 체류 불가능)

구분	항공(민스크 국제공항)	육로(차량, 철도)
벨라루스-러시아 왕래	벨라루스 비자 필요	금지
제3국-벨-러 또는 러-벨-제3국 이동	벨라루스 비자 필요	금지
벨라루스-제3국(러시아 제외) 이동	30일 무비자 적용 ※ 체류기간 30일 초과 시 비자 필요	벨라루스 비자 필요

2. <주의> 거주 등록에 대하여

- 비자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벨라루스에서 5일(캘린더데이)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등록"을 해야 함

※ 입국일, 출국일 포함하여 5일

※ 거주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 6일째가 되는 경우 현지법 위반으로 적발 시 처벌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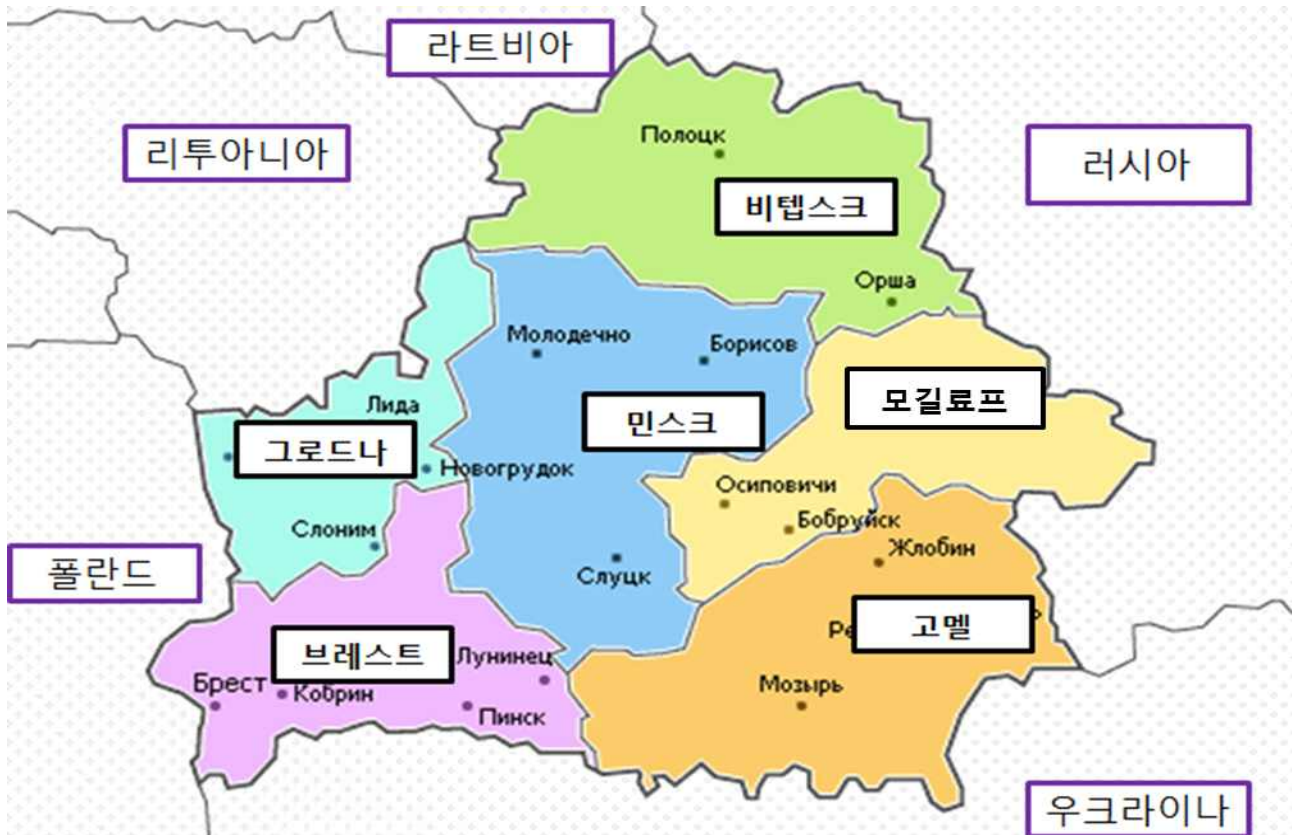
※ 호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체크인 시 조치되며, 아파트 임대 또는 지인의 거주지에 체류할 경우 이민국 방문 거주등록 필요

3. 문의사항

- 주벨라루스 대한민국대사관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by-ko/index.do>
 - 이메일: belemb@mofa.go.kr
 - 전화: +375-17-215-0170~2 (대표) / +375-29-369-1320 (근무시간 외, 당직)
- 주한 벨라루스대사관
 - 홈페이지: <http://korea.mfa.gov.by/ko/>

II. 벨라루스 개요

1. 국가현황 : 지도/국기/국장



※ 벨라루스는 6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국기의 왼편 문양은 전통 문양으로 (과거 독일군 기사와의 전쟁 중에 피가 묻은 흰 붕대가 승리의 표상으로 사용된 것에서 유래)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그것의 정신적인 계승, 국민의 단합을 나타내며, 빨강은 지나간 시대의 영광을, 초록은 미래·희망·봄·부흥·산림·들판을 상징

2. 국가현황 : 일반사항

국명	벨라루스 공화국 (Republic of Belarus)
위치	유럽 동부와 CIS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라트비아 141km, 리투아니아 502km, 폴란드 407km, 러시아 959km, 우크라이나 891km 면해 있는 내륙국 (국경길이 2,900km) (북위 53도, 동경 28도)
면적	207,600km ² (한반도보다 약간 작음), 국경길이 2,900km
기후	온대 대륙성 기후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우기로 일조량이 적으며, 기압이 낮음 (1월 평균기온 북부 -8도, 남부 -4.5도, 7월 평균기온 북부 17도, 남부 18.5도)
지형	최고 해발이 350m 수준으로 전체 국토가 완만한 평지를 이루며, 숲(영토의 34%), 천연 늪지와 호수가 많음
수도	민스크(Minsk) (197.7만 명, '22년 1월 기준)
행정구역	6개주(Oblast)와 특별행정구역(Minsk市)으로 구성, 5개국과 접경
인구	총인구 925.6만 명 ('22.1월 기준, 남성: 427.8만, 여성: 497.7만) - 인구증감률 (△1.0%, '22년 대비 '21년 증감률) - 평균연령: 40.9세 (남성: 38.1세, 여성: 43.3세, '21년 기준) - 출산율(1,000명당 9.3명), 사망률(1,000명당 12.8명) ('19년 기준) - 인구밀도 (45명/km ²), 인구분포 (도시: 78.1%, 농촌: 21.9%) ('22년 기준) - 평균수명: 74.5세 (남성: 69.3세, 여성: 79.4세, '21년 기준)
주요 지역 인구 현황	민스크市(Minsk, 199.7만 명), 민스크주(146.6만 명), 고멜주(Gomel, 135.8만 명), 모길료프주(Mogilev, 100.1만 명), 비텡스크주(Vitebsk, 110.4만 명), 그로드노주(Grodno, 100.7만 명), 브레스트주(Brest, 132.4만 명) ('22년 1월 기준)
민족	벨라루스인(84.9%), 러시아인(7.5%), 폴란드인(3.1%), 우크라이나인(1.7%), 기타 소수민족(2.8%)
언어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어가 일상 언어로 널리 쓰임 (문맹률 0.4%)
종교	러시아 정교(83.4%), 가톨릭(8.2%), 개신교(3.1%), 기타(5.3%)
건국일	1991.8.25 (소련연방에서 독립) (국경일: 1944.7.3 (독립기념일, 나치로부터))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공화제), 의회 민주주의, 양원제(상원 64석, 하원 110석)
국가원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1994년 7월부터 집권 중)
시차	민스크(+3)-서울(+9)간 6시간 차이 (벨라루스 9-18시 = 대한민국 15~24시)

3. 국가 현황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	백만 명	9,468	9,481	9,498	9,505	9,492	9,475	9,410	9,349	9,255
명목GDP	십억 달러	78.8	56.6	47.7	54.7	59.7	63.0	61.3	68.2	59.4*
1인당 명목GDP	달러	8,325	5,972	5,025	5,763	6,294	6,603	6,516	7,295	6,384*
실질GDP성장률	%	1.6	-3.9	-2.6	2.5	3.0	1.2	-0.7	2.3	-6.4*
실업률	%	5.4	5.8	5.9	5.7	4.8	4.2	4.1	3.9	4.5*
소비자물가상승률	%	18.1	13.5	11.8	6.0	4.9	5.6	5.5	9.5	13.3 (1-4)
재정수지(GDP대비)	%	1.0	1.8	1.3	2.8	3.8	2.4	-1.8	-0.03	-
총수출	백만 달러	35,011	25,614	22,588	28,072	32,186	31,088	27,263	28,289	5,493 (1-3)
(對韓 수출)	백만 달러	44.9	46.9	37.2	44.6	44.8	55.9	40.9	82.4	4.5 (1-4)
총수입	백만 달러	38,529	28,980	26,610	33,453	37,261	37,619	31,116	31,302	5,370 (1-3)
(對韓 수입)	백만 달러	41.0	47.0	28.5	28.6	32.6	47.7	54.6	69.6	10.8 (1-4)
무역수지	백만 달러	-4,421	-3,632	-4,072	-4,995	-4,683	-6,405	-3,853	-3,013	123
경상수지	백만 달러	-5,228	-1,831	-1,612	-952.4	22.9	-1,258	-259.4	1,843	-
환율(연평균)	BYN/US\$	1.0215	1.5864	1.9885	1.9318	2.0366	2.0914	2.4349	2.5382	2.7864 (1-4)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9.85	51.41	38.89	55.47	60.64	57.61	43.14	55.09	14.90 (1-3)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50.84	113.44	85.59	97.28	108.42	100.07	60.06	65.58	29.95 (1-3)

자료: 벨라루스 정부, 벨 통계청, 벨 중앙은행, IHS Market, EIU, World Bank, IMF, EBRD, KITA 등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 서방 경제제재 등으로 2022년 마이너스 성장 예상

- 코로나 팬데믹, 2020년 벨라루스 대선 불복시위, 루블화 평가절하 등으로 -0.9%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경제가 2021년은 2.3%의 회복 성장세를 보임
- 2022년 초 EBRD·World Bank·IMF 등 국제기구도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였으나,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최대 경제 의존국인 러시아와 함께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제2의 수출국이었던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이 중단되면서 경기가 얼어붙었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이외의 부정적 평가 배경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유가시장 불안, 러시아와 석유공급 갈등, 벨라루스 루블 불안정 등의 대내외 불안 요인이 있음
 - 세계 유가시장 정체 및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유가 의존성은 벨라루스 산업생산의 항시적 불안 요소임
- * 러시아로부터 특혜를 받아 싸게 구입하는 원유·가스를 가공해 수출하는 석유화학제품이 주 수입원
 - 특히 2019년 러시아 석유 부문 세제개편으로 양국이 갈등 중이며, 러시아의 보상이 없을 경우 2025년까지 벨라루스는 88~106억 달러의 손실이 전망됨
- * 그간 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무관세 수입하였으나, 2018년 7월 러시아 재무부가 벨라루스에게 유리한 특혜조건으로 석유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가 피해를 본다고 판단, 석유부문 세제 정책 개편을 통해 벨라루스에 대한 특혜범위를 축소함

4. 국가 현황 : 역사

- 선사 시대 (B.C 10만 ~ B.C 2만 4천 년)
 - B.C 10만-B.C 4만 년 벨라루스 영토에 인류 거주 시작
 - B.C 2만7천-B.C 2만 4천 년 최초 정착촌 등장
- 키예프 공국 시기 (6세기 ~ 1240)
 - 6세기부터 슬라브족이 벨라루스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 小公국들 수립
 - Polatsk 공국, Turov 공국, Pinsk 공국, Minsk 공국
 - 9세기경 Polatsk 공국 및 기타 공국들 키예프 루시에 복속
 - 1240년 몽골의 침략으로 대부분 몽골-타타르에 복속, 나머지는 폴란드-리투아니아 대공국에 귀속
- 제정 러시아의 지배 (16세기 ~ 1918)
 - 1569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의하여 분할
 - 1795년 제3차 폴란드 분할과정에서 벨라루스 영토 대부분이 러시아에 편입
 - 1863년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내란 발발
 - 1917.2 러시아혁명 시, 벨 민족주의자들 라다 위원회 구성 및 자치권 획득
 - 1917.11 붉은 군대의 침입으로 소비에트 연방에 통합
 - 1918.3.25 독일이 벨라루스 점령 후 벨라루스 인민공화국 독립 선포
- 소연방 시기 (1919 ~ 1990)
 - 1919.1.1 리가조약으로 동부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건국 선포
 - 1919.2 리투아니아와 합병되어 리투아니아-벨라루스 공화국 창설
 - 1921년 리가조약에 의해 서부 벨라루스가 폴란드에 편입
 - 1937~39 스탈린 테러 정치로 인한 대규모 희생 발생
 - 1939년 히틀러-스탈린 밀약에 의하여 종래 폴란드에 속한 서부 벨라루스 영토가 소연방 벨라루스에 편입
 - 1941~44년간 제2차 세계대전 및 독일 점령 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
 - 1939~45년간 인구 13% 감소
 - 1945년 얄타회담에서 벨라루스 국경 변경
 - 벨라루스 서부와 동부지역이 통합되고 150만 폴란드인이 폴란드로 이주
- 독립 및 벨라루스 공화국 시기 (1990 ~ 현재)
 - 1991.7.27 벨라루스 공화국 주권 선언 및 독립선언
 - 1991.12.8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함께 CIS 창설
 - 2001.9.9 루카셴코 대통령 재선
 - 2004.10.17 국민투표로 3선 금지 규정 철폐
 - 2006.3.20 루카셴코 대통령 3선
 - 2010.1.1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함께 관세동맹 설립
 - 2010.12.19 루카셴코 대통령 4선
 - 2015.10.11 루카셴코 대통령 5선
 - 2020.8.9 루카셴코 대통령 6선



5. 국가 현황 : 참고사항

벨라루스라는 국명의 기원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에 “백러시아(White Russia)”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흰색을 뜻하는 “벨라”와 “루스”가 합쳐진 말인데 그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설이 알려져 있다.¹⁾

- (1)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동슬라브족 거주지역(Ruthenia) 중 일찍 기독교화된 슬라브족 거주지를 백루스(White Ruthenia), 기독교화되지 않은 원시 슬라브족 거주지를 흑루스(Black Ruthenia)라고 불렀다는 설
- (2) 흰옷을 즐겨 입던 동슬라브족 거주지를 벨라루스라고 불렀다는 설
- (3) 13세기 몽골군의 침입 시 몽골군의 침략을 받지 않아 순수성(흰색)을 보존한 지역을 벨라루스라고 불렀다는 설
- (4) 벨라루스는 15세기에 모스크바대공국이 점령한 노브고로드 공국 지역을 지칭한다는 설

한편, 루스(Ruthenia 또는 Rus)라는 명칭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중세 이래 동슬라브족이 거주하던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모스크바대공국이 이반 4세 이후 키예프루스의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로부터 동슬라브족 거주지역을 탈취하고 전 동슬라브지역의 종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루스의 국가, 즉 “러시아”라고 자칭했다. 따라서, 벨라루스라는 명칭은 현재의 러시아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구소련권 내 러시아어 공용 상태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 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나라마다 러시아어의 지위는 서로 다르다.

- 국어(national language): 러시아, 벨라루스
- 공용어(official language):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통용어(language for interethnic communication): 타지키스탄

여타 구소련 국가들은 자국어만을 국어로 지정하고 러시아어는 공용어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러시아어가 일상적으로 특히 구소련시대를 거친 장년층을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보면 벨라루스는 러시아 이외에 러시아어가 공식적인 국어로 지정된 유일한 국가이다.

벨라루스는 유엔의 창설회원국

벨라루스는 유엔의 창설회원국이다. 그런데, 벨라루스가 공식적으로 독립한 날은 1991.8.25이고 소련이 해체된 일자 1991.12.8인데 어떻게 벨라루스가 독립하기 전인 1945년에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있었을까?

제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단안전보장 체제로서 유엔이 구상되었는데, 소련은 1944년 헌법을 개정하고 “소련의 각 연방공화국(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공화국)은 독자적인 외교권을 갖는다”라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소련 연방 명의로 유엔 회원국 자격 이외에 15개 소련연방 구성 공화국들이 모두 별도로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당시 소련 대표는 각 연방공화국의 지위는 아직 공식 독립국은 아니지만, 자치령(Dominion)이었던 캐나다 등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인도, 필리핀 등이 공식 독립을 획득하기 이전에 이미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례가 있는데, 물론 미국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들 자치령과 소련의 연방공화국은 다르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서방 진영과 소련 간 지루한 교섭 끝에 소련 연방공화국 중 반나치 투쟁에 공헌한 바가 큰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되었으며, 벨라루스는 1974-7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였다.

1) <http://en.wikipedia.org/wiki/Belarus>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피해

1986.4.26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벨라루스의 근현대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최대의 국가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체르노빌은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북부에 위치해 있지만, 벨라루스 국경에 가까이 있고 사고 발생 당시 동남풍을 타고 방사능물질이 북서쪽, 즉 벨라루스 쪽으로 확산되면서 벨라루스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실질적인 최대 피해국이 되었다(체르노빌에서 유출된 방사능의 70%가 벨라루스에 낙하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벨라루스는 현재까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6,200km²의 지역을 외부와 격리,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1,700km² 지역을 격리지역으로, 4,500km²의 지역을 주민소개지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벨라루스 비상사태 부는 체르노빌 사고의 수습·처리비용, 오염으로 인한 물적 손실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은 약 2,350억 달러, 사고 오염지역으로부터 소개한 주민은 13만 8,000여 명으로 추산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오염지역을 떠난 주민은 20만 명으로 보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법, 방사능 안전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오염 감시활동, 자연환경 감시활동, 방사능오염 제거 및 농축산물 오염정화 활동, 오염된 산림지역 격리 조치, 피해 주민 정기검진, 원전 사고 관련 연구·홍보활동 등 사고 후유증을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벨라루스인과 감자

벨라루스인들을 가리켜 인접 국가에서는 불바쉬(벨라루스어 бульба — «감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감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불바쉬(Бульбашь)라는 현지 유명 보드카 브랜드도 있음) 역사적으로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와 독일군의 주요 격전장이 되었던 벨라루스는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자를 대량으로 경작하기 시작했다.

감자를 이용한 벨라루스 전통 음식들은 지금도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감자 요리로는 드라니키(Potato pancake)를 들 수 있는데 그 맛은 한국의 감자전과 매우 비슷하다.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의 성격

통상적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복수 국가가 개별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능을 국가연합 기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국가연합기구 없이 정책 조율을 거치는 동맹(alliance)보다는 진전되고 체계화된 국가통합 단계이고 △국가가 모든 주권을 단일정부에 양도하고 통합국가의 구성국으로 속하게 되는 연방(federation)에는 못 미치는 통합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은 양국 주권 기능의 일부 수행이라는 통상적인 국가연합 기구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연합의 성격에 대해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는데, 벨라루스는 동 국가연합을 양국이 주권을 유지한 진정한 국가연합으로 보지만, 러시아는 사실상 러시아-벨라루스 연방국 창설로 보고 있었다.²⁾

2) Audrius Zulys, “Towards A Union State of Russia And Belarus,” *Lithuanian Foreign Policy Review* (Foreign Policy Research Center, Lithuania), No. 15-16/2005 pp. 157-158.

Ⅲ. 벨라루스 경제무역동향

□ 벨라루스 경제의 특징

- 벨라루스는 정부 주도 계획경제 시스템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 관(官)이 시장을 견인함으로써 고용 안정, 물가 조정 등 경제 운영의 편더멘털을 관리
 - 소비에트 경제의 유산이며, 루카셴코 대통령은 소비에트 경제 추종 성향이 강함
- 동맹 러시아에 높은 경제의존도, 러시아 경제 호·불황에 영향을 받음
 - 대외교역 러시아 비중이 50% 이상, 최근 중국의 투자 진출 확장세가 두드러짐
- 벨 제조기업 중 상당수는 국영기업인데, 제조사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舊소련식 계획경제가 여전히 작동 가능
 - 시장 수요와 관계없이 생산, 재고가 누적되어 기업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
 - 국영기업이 많아 상당수의 구매가 공공조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계획경제의 폐단을 상쇄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을 활용해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
 - 벨 인구 926만 / 러 인구 1.46억 ⇒ 러시아 및 인근국, EU 시장진출이 관건

□ Doing Business in Belarus

- **(Ease of Doing Business)** '20년 World Bank에서 발표한 벨 순위는 전체 190개국 중 49위로 지수가 개선되고 있음 ('14년 63위였음)
 - 특히 법인설립, 건설허가, 전력공급, 부동산등록 분야에서 꾸준한 지표 개선
 - 국제청렴성기구 발표 부패인식지수(CPI)도 매년 개선('13년 123위⇒'20년 63위)
- **(Tax Environment)** '20년 기준 법인세율 18%, 부가세 20% 등이며, 기업 영업이익의 대략 51.8%가량이 정부에 납세 되고 있는 상황
 - 부가세는 품목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농산물, 유아용품 등에는 10% 부가
- **(IFDI Environment)** 벨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중 70%가량이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일종의 국영기업임. 이에 외국기업이 투자를 실행하기에는 비교적 규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

□ 벨라루스의 강점

○ **(러시아와 동맹 관계)**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특수 관계에 있고, 자원보급, 수출입 등 실물경제 측면에서 對러 의존도 상당히 높은 편임.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 **(EAEU, 새로운 성장동력)** CIS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높은 기술력과 R&D, 탄탄한 제조 기반, 물리적 인접성 등이 강점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라벨카자흐 3국 관세동맹을 토대로 '15.1월 출범한 경제연합체, 현재 회원국 5개국 (3국+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인건비)** '22년 1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163달러(457루블)이며, '21년 기준 월 평균임금은 약 565달러 수준임

- **(노동시장)** 계획경제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인구의 1/4가량은 공공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노동 가능 여성인구 중 70%가량이 근로 중

- **(R&D)** 높은 교육열과 다수의 고학력자, 기술 인력 등을 바탕으로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으로 적극 육성 중

* 특히, ICT 분야에 있어 R&D 경쟁력 우수 (Hi-Tech Park 등)

* 전체 R&D 자금 중 기업 자체 조성자금은 50%에 육박

○ **(제조업/ICT산업 발달)** 타 CIS 국가에 비해 공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공업과 ICT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부터 기초과학, 컴퓨터 공학 수준이 상당했으며, 여타 국가와 달리 소련 해체 후에도 자국 내 제조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2020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47위로 러시아(32위)를 제외하고 CIS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참고로 러시아 인구는 벨라루스 인구의 약 15.6배이며 GDP규모는 약 24.5배임

< Hi-Tech Park >

○ 벨라루스 IT 인재들의 메카라고 불리는 Hi-Tech Park는 '06년 첫 입주 이후 '22.5월 기준 1,065개의 ICT 관련 기업이 입주 중(한국의 판교테크노밸리와 유사)

- 입주기업 절반 이상이 외국 투자 또는 합작기업이며, 생산제품의 90% 이상은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 목적, 2021년 기준 ICT 전문인력 71,000명 이상이 근무 중

□ 벨라루스 대외교역 현황

- 벨라루스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가스(러시아로부터 수입), 기계 및 차량, 전자기기, 철강, 의약품, 의료/광학기기 등의 10대 품목군이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벨라루스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순위	품목군	HS	금액	비중	증감률	품목군	HS	금액	비중	증감률
	전품목	-	31,116.1	100	△17.29	전품목	-	31,302.3	100	0.60
1	연료/에너지	27	6,583.8	21.16	△32.72	연료/에너지	27	4,039.6	12.91	△38.64
2	보일러/기계	84	3,368.6	10.83	△15.69	보일러/기계	84	3,418.3	10.92	1.48
3	전자기기	85	2,350.7	7.55	△15.43	전자기기	85	2,945.5	9.41	25.31
4	플라스틱류	39	1,595.4	5.13	△7.12	철강	72	2,327.0	7.43	66.48
5	철강	72	1,397.8	4.49	△16.88	플라스틱류	39	1,798.9	5.75	12.76
6	운송기기	87	1,379.1	4.43	△26.17	운송기기	87	1,234.7	3.94	△10.47
7	의약품	30	999.5	3.21	18.27	철강제품	73	1,047.4	3.35	13.54
8	철강제품	73	922.5	2.96	△11.69	의약품	30	980.0	3.13	△1.95
9	의료/광학기기	90	687.4	2.21	△11.42	의료/광학기기	90	690.3	2.21	0.42
10	유기화학품	29	527.7	1.70	△13.61	종이/제지류	48	611.2	1.95	23.56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벨라루스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순위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전세계	31,116.1	100	△17.29	전세계	31,302.3	100	0.60
1	러시아	16,007.5	51.44	△24.70	러시아	16,067.5	51.33	0.37
2	중국	3,494.7	11.23	△0.63	중국	3,401.6	10.87	△2.66
3	독일	1,678.0	5.39	△5.55	독일	1,585.1	5.06	△5.54
4	우크라이나	1,364.6	4.39	△18.87	우크라이나	1,453.9	4.64	6.54
5	폴란드	1,216.6	3.91	△8.24	폴란드	1,102.0	3.52	△9.42
6	이탈리아	681.6	2.19	△13.33	이탈리아	743.4	2.37	9.07
7	터키	590.3	1.90	△22.10	터키	690.0	2.20	16.89
8	미국	451.0	1.45	△4.56	미국	406.8	1.30	△9.82
9	네덜란드	386.9	1.24	△8.08	프랑스	328.1	1.05	9.04
10	프랑스	300.9	0.97	△12.33	스위스	274.6	0.88	10.50
	일본(19)	161.1	0.52	22.47	일본(23)	132.2	0.42	△17.94
	대한민국(25)	118.3	0.38	△16.45	대한민국(33)	96.5	0.31	△18.41
	대만(32)	86.3	0.28	△9.09	대만(34)	86.3	0.28	0.00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로 가공), 화학제품(칼리비료), 기계 및 차량(트랙터 및 트럭), 농식품류, 목재, 금속류 등의 제품이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21년 서방의 경제제재로 국영기업 생산제품(칼리비료, 석유제품, 차량) 수출이 급감하였음

[벨라루스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순위	품목군	HS	금액	비중	증감률	품목군	HS	금액	비중	증감률
	전품목	-	27,262.8	100	△12.30	전품목	-	28,289.3	100	3.77
1	연료/에너지	27	3,717.8	13.64	△45.50	낙농품	04	2,715.7	9.60	12.32
2	비료	31	2,927.2	10.74	△10.23	연료/에너지	27	2,460.3	8.70	△33.83
3	낙농품	04	2,417.9	8.87	2.13	목재	44	2,334.3	8.25	54.68
4	운송기기	87	2,068.4	7.59	△13.99	보일러/기계	84	1,837.4	6.49	22.79
5	목재	44	1,509.1	5.54	6.73	운송기기	87	1,588.9	5.62	△23.18
6	보일러/기계	84	1,496.3	5.49	3.57	철강	72	1,317.1	4.66	52.57
7	플라스틱류	39	1,013.0	3.72	△7.82	전자기기	85	1,302.9	4.61	31.88
8	전자기기	85	988.0	3.62	1.19	플라스틱류	39	1,180.4	4.17	16.52
9	철강	72	863.3	3.17	△15.54	철강제품	73	1,114.7	3.94	39.48
10	식용 육류	02	804.7	2.95	2.62	가구/침구류	94	1,043.0	3.69	46.11
11	철강제품	73	799.2	2.93	△9.70	비료	31	1,035.7	3.66	△64.62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벨라루스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순위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전세계	27,262.8	100	△12.30	전세계	28,289.3	100	3.77
1	러시아	12,639.5	46.36	△4.64	러시아	14,415.5	50.96	14.05
2	우크라이나	3,108.9	11.40	△24.04	우크라이나	2,472.0	8.74	△20.49
3	국가 미상	2,474.9	9.08	△13.60	폴란드	1,777.9	6.28	51.14
4	폴란드	1,176.4	4.31	△0.40	리투아니아	1,265.6	4.47	22.96
5	리투아니아	1,029.3	3.78	△1.73	독일	1,125.2	3.98	24.62
6	독일	902.9	3.31	△30.45	네덜란드	1,104.9	3.91	60.31
7	영국	823.5	3.02	△64.08	국가 미상	876.8	3.10	△64.57
8	카자흐스탄	741.8	2.72	1.80	카자흐스탄	791.1	2.80	6.65
9	네덜란드	689.2	2.53	△13.97	중국	557.8	1.97	31.40
10	중국	424.5	1.56	50.89	라트비아	497.8	1.76	62.25
	대한민국(63)	9.3	0.03	28.14	대한민국(59)	10.7	0.04	16.24
	일본(69)	6.9	0.03	△27.37	일본(60)	9.6	0.03	37.58
	대만(91)	2.1	0.01	△74.12	대만(84)	2.4	0.01	15.71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IV. 한국-벨라루스 관계

1. 기본 현황

체결 협정 및 약정	체결일	체결 내용
	1997년 04월	투자보장협정, 외무부 간 협정의정서
	2003년 06월	이중과세방지협정
	2004년 10월	경제·과학·기술 협력 협정, 감사원 간 교류 협력 약정
	2004년 11월	무역협정
	2006년 07월	소방방재청 간 협력 약정
	2006년 9월	상공회의소 간 협력 약정
	2007년 11월	문화협정, 항공협정, 세관 분야협력 약정, 표준화 약정,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기술 표준분야 협력 약정, 과학연구단지 간 협력 약정
	2008년 12월	한-벨 과학기술 협력 MOU (2017년 4월 개정)
	2009년 06월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양국이 문안에는 합의 하였으며 서명 계기에 대해서는 협의 중
	2012년 06월	증권거래기관 간 협력 약정
	협의 중인 협정: 원자력 협정, 세관 상호지원협정	
교역 규모	- 수출(백만\$): ('16) 28.5, ('17) 28.6, ('18) 32.6, ('19) 47.7, ('20) 54.6, ('21) 69.6 - 수입(백만\$): ('16) 37.2, ('17) 44.6, ('18) 44.8, ('19) 55.9, ('20) 40.9, ('21) 82.4	
교역품	- 對벨라루스 수출품: 자동차(부품), 타이어,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기계류 등 - 對벨라루스 수입품: 칼륨비료, 반도체, 유리 제품, 식물·의류, 목재 등	
투자 교류	SK하이닉스, 벨라루스 펄웨어 기업 인수합병(1천만\$ 규모, 2014.06) 등 4개 사	
교민	벨라루스 거주 재외동포 현황: 약 1,300여 명(민스크에 약 300명) 추정 교민현황: 약 52명 (선교사/주재원/공관 직원 가족 및 유학생, '22년 5월 기준)	

(자료: 외교부, KITA, 한국수출입은행 등)

2. 韓-벨라루스 교역 현황

- 1992년 수교 후, 한-벨 양국 간 교역은 단기간 내 급격히 성장해 왔고, 2021년 교역액은 1993년 대비 38.3배가 증가한 1.52억 달러를 기록
 -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 규모가 작다 보니 연도별로도 등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벨라루스로 직접 수출하는 금액만 우리 관세청 통계상에 잡힘
-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을 통해 벨라루스로 우회 수출되는 제품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로 벨라루스 관세청이 원산지 등을 따져본 결과,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규모는 매년 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18년 1억 2,363만 달러, '19년 1억 4,159만 달러, '20년 1억 1,830만 달러, '21년 9,652만 달러임

○ 최근 8년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교역 현황 (단위: 천 U\$, %) (자료: KITA)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금 액 40,955 증감률 △42.6	47,026 14.8	28,469 △39.5	28,645 0.6	32,559 13.7	47,696 46.5	54,573 14.4	69,612 27.6
수입	금 액 44,894 증감률 51.4	46,940 4.6	37,163 △20.8	44,613 20.0	44,769 0.4	55,934 24.9	40,885 △26.9	82,434 101.6

○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출 품목 및 증감률 (단위: U\$,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7	농약및의약품 3,123,901 (6.0)	기계요소 3,072,837 (780.1)	자동차부품 2,914,246 (18.2)	합성수지 2,619,308 (25.2)	합성수지 2,538,348 (△27.0)
2018	고무제품 3,412,752 (30.3)	자동차 2,463,848 (5,006.9)	기타기계류 2,369,638 (116.6)	농약및의약품 2,335,049 (△25.3)	자동차부품 2,138,552 (△26.6)
2019	자동차 8,659,333 (251.5)	고무제품 5,752,608 (68.6)	자동차부품 3,971,194 (85.7)	의료용기기 3,159,726 (62.9)	계측제어분석기 2,476,669 (27.1)
2020	고무제품 13,957,408 (142.6)	자동차부품 7,393,102 (85.5)	자동차 4,644,033 (△46.4)	비누치약및화장품 2,922,014 (55.9)	농약및의약품 2,919,862 (32.6)
2021	자동차 11,700,461 (151.9)	고무제품 11,372,866 (△18.5)	자동차부품 10,498,441 (42.0)	철강판 5,448,625 (124.7)	의료용기기 3,016,992 (82.4)

(자료: KITA, MTI 3단위 기준)

- 현지에서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인기는 높지만, 이들 제품은 벨라루스로 직수출되는 제품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벨라루스로 유통하고 있음. 우리 기업의 對벨라루스 수출, 특히 직수출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 또한 다양함. 그러나 수출금액 측면에서 소규모 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입품목 및 증감률 (단위: U\$,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7	칼륨비료 34,946,897 (19.8)	반도체 4,304,614 (0.3)	기타직물 1,653,598 (26.7)	기타화학공업제품 980,644 (0.0)	광학기기 463,076 (△10.9)
2018	칼륨비료 33,709,201 (△3.5)	반도체 3,647,116 (△15.3)	기타직물 2,002,244 (21.1)	목재류 1,562,948 (4,121.9)	광학기기 606,226 (30.9)
2019	칼륨비료 47,237,248 (40.1)	반도체 3,295,099 (△9.7)	기타직물 1,676,314 (△16.3)	목재류 623,742 (△60.1)	의류 505,901 (182.7)
2020	칼륨비료 29,256,723 (△38.1)	반도체 3,751,951 (13.9)	기타직물 2,377,474 (41.8)	기타화학공업제품 953,077 (334.1)	목재류 717,747 (15.1)
2021	칼륨비료 65,501,860 (123.9)	반도체 5,842,298 (55.7)	기타정밀화학제품 3,399,795 (375.7)	기타정밀공업제품 1,466,023 (53.8)	기타직물 1,173,226 (△50.7)

(자료: KITA, MTI 3단위 기준)

3.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투자 진출

- 현재 벨라루스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4개 사인데, LG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2개사와 금청약품 대표사무소, 제이케이테크지엠엔(제이코맥스) 현지법인 등임 - R&D 법인으로 진출한 SK하이닉스의 투자액이 전체의 99.9%로 대부분을 차지, 실제 우리의 對벨라루스 투자는 전체 해외진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 SK하이닉스는 벨라루스 현지의 IT 기업을 인수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데, 다른 투자 진출 기업과는 다소 독특한 형태로 투자 진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벨라루스 IT기업 Softeq社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합병(1천만\$ 규모, 2014.06)
 - IT분야 R&D 투자는 현지의 우수한 IT인력을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실현된 것임

V.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 시차

- 한국과 벨라루스의 시차는 -6시간 (한국이 15시일 때, 민스크는 09시)

☐ 기후

- 온대 대륙성 기후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우기로 일조량이 적으며, 기압이 낮음
 - 1월 평균기온 북부 -8도, 남부 -4.5도, 7월 평균기온 북부 17도, 남부 18.5도

☐ 전압

- 220V, 50Hz 사용 (한국 가전제품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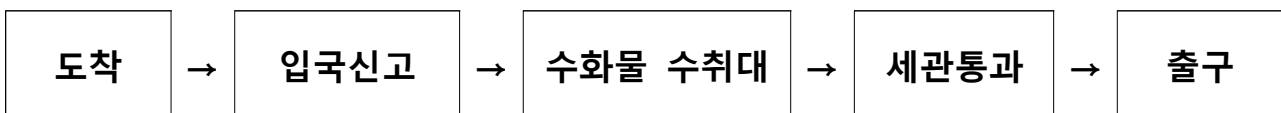
☐ 비자

-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벨라루스에 단기 체류(30일 이내) 시, 비자 취득 없이 입국 및 방문이 가능
 - 단, 러시아를 경유해서 벨라루스로 입국할 경우에는 벨라루스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입국 가능
- 단기 체류가 아닌 경우, 벨라루스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함
 - 관용 여권 및 외교관 여권은 방문비자 취득 불요

☐ 취항 정보

- 한국과 벨라루스 간 직항편은 없으며, 통상 모스크바, 헬싱키, 바르샤바, 아부다비, 이스탄불, 타슈켄트, 알마티, 프랑크푸르트 등을 경유해 입국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CIS지역 경유를 제외한 항공편 운행중단

☐ 입국 절차



□ 교통

○ 택시

- 민스크에서는 택시 이용 시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길거리에서 택시를 보고 손을 흔들어도 거의 서지 않음
-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도 있으나 요금이 비싸며, 일부 호텔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함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콜택시 번호는 107, 125, 135, 152, 7788 등임
- 공항-시내 간 공항택시는 편도 40~50루블(약 20~25,000원) (2022년 5월 기준)

○ 대중교통

- 공항버스: 시내까지 약 1시간 소요, 4루블 (약 2,040원) (2022년 5월 기준)
- 지하철: 민스크에는 3개의 지하철 라인이 있음. 1회 탑승권 구입 후 도착역까지 환승이 가능 (2022년 5월 기준 0.9루블, 약 460원)



- 버스, 궤도전차, 궤도버스: 1회 탑승권 구매 후, 도착 정류장까지 이용. 환승은 불가 (2022년 5월 기준 0.85루블, 약 430원)
- 대중교통의 경우, 비교적 깨끗하고 구역별로 잘 정리돼 불편함은 없으나, 운행노선을 잘 모르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전화

- (국제전화) 휴대폰으로 한국으로 전화할 때는 +82(한국 국가번호) - 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됨

□ 환율 및 환전

- 화폐단위: 벨라루스 루블(Rouble: BYN)
 - 지폐 종류: 500/200/100/50/20/10/5 루블 8종류
 - 동전 종류: 2루블, 1루블, 50/20/10/5/2/1 코페이카 8종류
- 환율 : 벨라루스 중앙은행 기준환율('22.5월) US\$1 당 약 2.50루블
 - 원화 기준 환산 시, 1 벨라루스 루블(BYN)은 약 510원
 - 참고사항: 벨라루스 루블은 필요한 만큼만 환전을 권장하며, 벨라루스 내 상점 및 식당에서는 외화는 일체 사용되고 있지 않음
- 환전장소: 은행, 호텔, 거리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가능
 - 환율은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액수가 아닐 경우 호텔 내 환전소를 이용해도 큰 차이 없음
- 카드사용: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됨(영세상점, 시장 제외)

□ 거주 등록

- 벨라루스는 외국인의 불법이주를 막기 위해 거주지 등록제를 시행 중
 - 근무일 기준 5일 내 출국 시에는 거주 등록이 불필요하나 그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 등록을 해야 출국 시 문제가 없음
- 호텔 체크인 시에는 자동으로 거주 등록이 되나, 1주일 이상 아파트에 체류할 경우 집주인의 거주 등록 지원 여부 사전확인 필요

□ 신변 안전

- 일반적으로 민스크에서의 범죄율은 매우 낮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음

VI. 민스크 시내 주요 식당 정보

☐ Rakovskiy Brovar

- 전화: +375-44) 733-9339
- 주소: Витебская улица, 10 (Vitebskaya street, 10)
- 메뉴: 벨라루스식 (생맥주를 겸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곳)

☐ Kukhmister

- 전화: +375-29) 119-4900
- 주소: ул. К. Маркса 40 (K. Marx street, 40)
- 메뉴: 벨라루스식

☐ Astoria Central

- 전화: +375-17) 327-0991, +375-29) 178-4445
- 주소: пл. Свободы, 23 (Plochad Svobody, 23)
- 메뉴: 아제르바이잔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분위기가 고급스러움)

☐ La Scala

- 전화: +375-29) 311-9999
- 주소: ул. Немига 36 (st. Nemiga 36)
- 메뉴: 이탈리아식 (이탈리아인 주방장이 운영)

☐ Grand Café

- 전화: +375-44) 703-1111
- 주소: улица Ленина, 2 (Lenin street, 2)
- 메뉴: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분위기가 고급스러워 귀빈 접대에 적합)

☐ 양쯔(Yangtze)

- 전화: +375-17) 328-5332, +375-29) 123-6688
- 주소: пл. Свободы, 8 (Plochad Svobody, 8)
- 메뉴: 중식 (최근 비빔밥을 새로운 메뉴로 소개, 한식당이 없는 민스크에서 유일하게 한식(비빔밥)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 Beijing hotel 'Season'

- 전화: +375-17) 329-7777
- 주소: ул. Красноармейская, 36 (st. Krasnoarmeyskaya, 36)
- 메뉴: 중식 (북경 오리 등 고급스러운 중국 음식으로 귀빈 접대에 적합)

❑ Chumatzkii Shulyakx

- 전화: +375-29) 190-7777
- 주소: ул. Мясникова 34, Минск (st. Myasnikova 34, Minsk)
- 메뉴: 우크라이나식, 벨라루스식 (편안한 분위기)

❑ Royal Oak

- 전화: +375-44) 774-4667
- 주소: ул. Киселёва 20 (st. Kiseleva 20)
- 메뉴: 영국식, 유럽식 (영국식 Pub으로 생맥주를 겸해 식사 가능)

❑ Ronin

- 전화: +375-29) 157-2905
- 주소: ул. Богдановича, 78 (Minsk, Bogdanovicha, 78)
- 메뉴: 퓨전 일식 (깔끔한 분위기)

❑ Chiakhana Bangalor

- 전화: +375-29) 325-4545
- 주소: ул. Сурганова, д.61 (st. Surganova, d.61)
- 메뉴: 우즈베키스탄식 (중앙아시아 음식으로 맛볼 수 있음)

❑ Hilton hotel Restaurant 'Ember'

- 전화: +375-44) 507-1729
- 주소: пр-т. Победителей 9 (Prospekte Pobeditelei 9) (7층)
- 메뉴: 유럽식, 퓨전식 (힐튼 호텔 내 고급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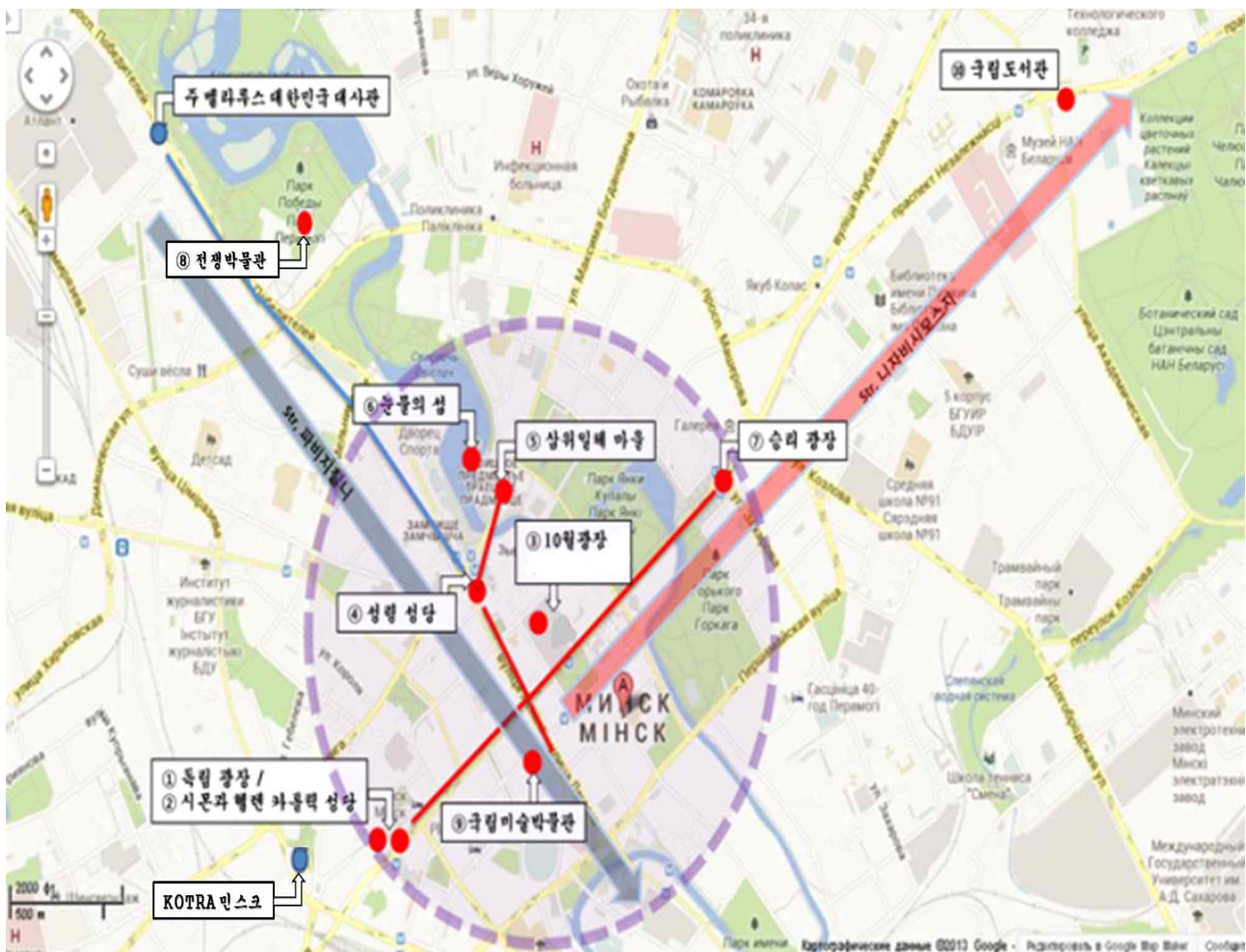
❑ Sporting Club

- 전화: +375-17) 266-6999
- 주소: проспек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193 (Prospekt Nezavisimosti, 193)
- 메뉴: 벨라루스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야외 클레이 사격장이 함께 있음)

VII. 주요 명소 및 기념품

1. 민스크 시내 주요 명소

수도 민스크는 약 955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벨라루스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독립국가연합(CIS)의 사무국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으나 전후 재건되어 도시 미관이 매우 아름답고 깨끗하다. 도로망 또한 잘 발달하여 있다. 반면에 역사적인 유적이나 옛 건축물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민스크 대부분의 관광 명소들은 중앙로인 독립대로(Ave. Nezavisimosti, проспект Независимости)에 따라 위치해 있다.



- 독립광장 (площадь Независимости, Independence Square)
 - 민스크 시내를 관통하는 독립대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청사, 벨라루스 국립대학, 벨라루스 국립사범대학, 시청과 중앙우체국, 그리고 가톨릭 성당과 민스크 호텔 등이 위치
 - 정부청사 앞에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후 소련 연방 창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 동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는 현대식 지하 쇼핑센터임



- 가톨릭 성당(시몬과 헬렌 성당) (Костёл Святого Симеона и Святой Елены : Красный костёл, St. Simeon and St. Helen Roman Catholic Church : The Red Church)
 - 독립광장 옆에 위치한 고딕양식의 가톨릭 성당으로 외벽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특성으로 인하여 붉은 성당이라고도 불림
 - 1908년에 착공하여 1910년에 완공되었는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대표적인 유적



○ 10월 광장 (Октябрьская площадь, October Square)

- 민스크 시내 중심에 위치한 큰 광장으로 주위에 국립회관, 문화회관, 중앙공원, 그리고 舊 대통령 집무실 등이 인근에 위치
- 특히 국립회관은 구소련 연방 시절 공산당 전당대회 목적으로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문화 공연 장소로 이용 (건물 외곽 모양은 모스크바의 레닌의 묘를 본떠 건립)
- 10월 광장에 위치한 0Km 라는 이정표가 있는데 이는 민스크가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중심임을 상징



○ 성령 성당 (Кафедральный собор Сошествия Святого Духа, Holy Spirit Cathedral)

- 민스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로 스비슬로치 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 1642년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러시아 정교회 사원으로 전쟁의 폐허가 비껴간 유적 중의 하나로, 내부에는 러시아 정교회를 상징하는 많은 성상과 성화가 있어 이를 감상할 수 있고 일요일 오전에 방문하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참관할 수 있음
- 주소: улица Кирилла и Мелодия, 3 (St. Kirilla and Mefodiya 3)
- 근처 자유광장(Площадь Свободы, Svaboda Square)에 초기 시의회 건물과 열쇠를 들고 발아래 16세기 도시 계획을 펼쳐놓은 치안판사의 동상이 있음



- 삼위일체 마을 (Троицкое предместье, The Trinity Suburb)
 - 민스크에서 올드타운(Old town)으로 불리는 지역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지 않은 지역으로 18~19세기 민스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 민스크를 가로지르는 스비슬로치 강변 위치해 있고 붉은 계통의 낮은 건물은 중세 유럽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많은 건물은 레스토랑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강변 쪽으로 노천카페의 맥주 축제와 공연들이 관광객과 민스크 시민에게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
- 눈물의 섬 (Остров слез(Остров Мужества и Скорби), Island of Tears)
 - 스비슬로치 강변에 위치한 섬으로 1979~1989 아프가니스탄 참전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가 1996년 세워짐. 아들·남편·연인을 잃은 여인들의 표정이 잘 묘사되어 있음. 주변 호수 벨라루스 호텔 앞에는 작가 푸쉬킨의 동상이 있음
- 승리 광장 (площадь Победы, Victory Square)
 -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해 1954년에 세워진 40m 높이의 오벨리스크 전승 기념비가 독립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전쟁 당시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이 1961년 점화된 후 지금까지 타고 있음
 - 벨라루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 국민의 30%가 사망
 - 가까이에 스비슬로치 강이 흐르며 아름다운 고리키 공원과 얀카 쿠팔라 공원이 있어 잠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음
 - 지하철역 : Площади Перемоги (Ploschady Peremohi)
- 전쟁 박물관 (Музей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State Museum of War)
 - 승리공원(Парк Победы)에 위치. 구소련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전쟁 박물관으로는 최초로 개관됨
 - 1941~1945년까지의 전쟁 상황에 대한 기록문서와 사진, 전투 상황과 무기, 그리고 유격대들의 활약상을 기록 전시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 주소 : пр. Победителей, 8 (Pobediteley Ave, 8)
- 국립 미술박물관 (Национальны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National Art Museum of Republic of Belarus)
 - 벨라루스의 최대 미술박물관으로 현재 2만 6천 점의 소장품을 소유
 - 중세와 근대에 걸친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한 가톨릭과 러시아 정교회의 성상과 성화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으며, 2009년 5월 한국관이 개설됨
 - 주소: улица Ленина, 20 (Lenin street, 20)

- 국립 서커스 (Белорус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цирк, Belarus State Circus)
 - 벨라루스의 최대 서커스장으로 매 시즌마다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공연함
 - 주소: проспек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32 (Independence Avenue 32)
- 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 (Большой театр Беларуси, Belarus National Bolshoi Opera and Ballet Theater)
 - 1937년에 완공된 벨라루스 최대 극장으로 다양한 오페라 및 발레가 공연됨
 - 주소: пл. Парижской Коммуны, 1 (pl. Paris Commune, 1)
- 독립 궁전 (Дворец Независимости, Independence Palace)
 - 대통령궁으로,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 외교사절단 접견 장소이기도 함
 - 주소: просп. Победителей, 12 (Ave. Winners, 12)
- 깃발 광장 (Площад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лага, State Flag Square)
 - 벨라루스 최대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광장으로 대통령궁 및 전시장 옆에 위치
 - 주소: просп. Победителей, 14 (Ave. Winners, 14)
- 민스크 게이트 (Ворота Минска, Minsk City Gates)
 - 민스크 중앙역 맞은편에 2개의 1950년대 스탈린 양식 건물이 대칭적으로 위치
 - 주소: ул. Кирова, 2 (st. Kirov, 2)
- 벨라루스 국립도서관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Беларуси, Belarus State Library)
 - “지식의 보화”란 의미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본떠서 2006년 6월 개관, 옥상 전망대에 오르면 시내 전경을 볼 수 있음. 높이 72.6m, 총면적 112,600㎡
 - 도서관 기본시설 이외에 고서 박물관, 미술박물관,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음
 - 주소: проспек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116 (Independence Avenue 116)
- 성 피터&폴 성당 (Собор Святого Петра и Павла, St. Peter & Paul Cathedral)
 - 러시아 정교회 성당으로 민스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임
 - 주소: Раковская ул, 4 (Rakovskaya St, 4)
- 알렉산더 넵스키 사원 (Церковь святого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Church of St. Alexander Nevsky)
 - 1877~1878 러시아-터키전쟁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사원으로 1898년에 완공
 - 주소: ул. Козлова, 11 (st. Kozlova, 11)

2. 민스크 시외 주요 명소

- 미르성 (Мирский замок, Mir Castle)
 - 민스크 남서쪽으로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16세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성벽 높이 13m)로 구소련시절엔 방치되어 있었다가 1990년 독립 이후 국가 시책으로 복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는 완전한 복원을 이룸
 - 2000년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으며 벨라루스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여름에는 중세 전투를 재현하는 축제가 개최되어 관광객을 사로잡음
- 네스비쉴 성 (Несвижский замок, Nyasvizh)
 - 민스크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네스비쉴은 벨라루스에서 가장 부유했던 봉건 영주이며 귀족인 '라드지빌스'가의 거주 지역으로 16세기경에 이탈리아 건축가에 의해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짐
 - 넓은 벌판에 인공으로 만든 독과 요새와 수로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모습을 자랑
- 샤갈 박물관 (Музей Марка Шагала, Mark Chagall's Museum)
 - 세계적으로 색채의 마술사 또는 표현주의의 대가라 불리는 마르크 샤갈(1887~1985)의 생가가 비텟스크에 위치
 - 샤갈은 제정러시아 시대에 출생하여 사회주의 소련을 떠나 유럽에서 작품활동을 하여 구소련 당시에는 잊혀진 존재가 되며, 이로 인하여 샤갈의 생가에 대한 보전도 관심이 없다가 최근 뜻을 같이한 사람들에 의해 그의 생가가 복원
 - 전시된 작품은 주로 유년기 작품 및 습작 또한 그가 사용했던 소품들로 샤갈의 생가에서 비록 그의 위대한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의 예술적 영감의 태동은 직접 느낄 수 있음
 - 주소: St, Pokrovskaia 29, Vitebsk City
- 민속촌 (두두끼: Дудutki, Dudutki)
 - 민스크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민속촌으로 19세기의 벨라루스 전통 민속 마을의 모습을 재현한 곳
 - 대형 풍차와 도기 제조소, 그리고 대장간과 보드카를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장비도 전시해 놓고 있으며, 여름에는 전통공연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음
- 브레스트 요새 (Брестская крепость, Brest Fortress)
 - 폴란드와 국경을 접한 도시인 브레스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
 - 무명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조형물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음

- 핫틴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Хатынь”, KHATYN)
 - 민스크에서 북쪽으로 약 5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치 독일군의 잔악성을 고발하는 장소로 활용
 - 1943년 3월 22일 독일군이 핫틴 마을에 진입하여 마을주민을 한곳에 가둔 후 불로 학살했는데 149명 중에서 75명이 어린아이들로, 당시 유일한 생존자인 한 할아버지가 희생된 손자를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있음
 -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는 비석들이 조성되어 있으며, 30분마다 울리는 타종 소리는 후손들에게 전쟁의 참혹성과 조국애를 상기 시키고 있음
- 영광의 언덕 (Курган Славы, Mound of Glory)
 - 민스크 국제공항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소련 붉은 군대와 나치 독일군 간의 가장 치열했던 탱크전이 있었던 장소에 세워진 기념탑
 - 당시의 탱크전 때 소련군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독일까지 진격하게 되고 전승을 거두었으며,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벨라루스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 고향의 흙을 직접 가지고 와서 쌓아 언덕을 만들고 정상에 기념비를 세운 후 이를 영광의 언덕이라 명명함
 - 정상에 올라가면 벨라루스의 드넓은 평원을 한눈에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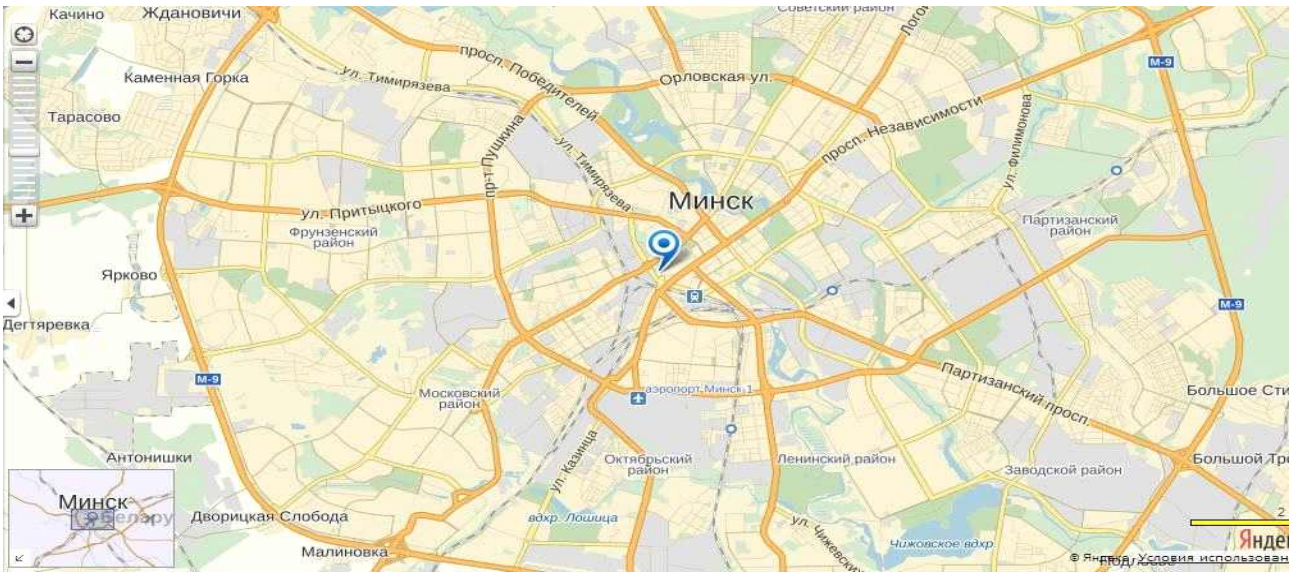
3. 벨라루스 기념품

- 벨라루스는 양질의 linen(아마) 생산국으로, 이를 재료로 하여 만든 벨라루스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인형과 베갯잇, 식탁보 등의 수공예품이 유명
- 나뭇가지나 밀짚을 엮어서 만든 바구니, 인형, 그리고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슈카툴카(шкатулка, Shkatulka)」라고 불리는 보석함과 행운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지닌 「말발굽」 모양의 수공예품도 있음
- 이 외에 벨라루스의 상징인「주브르(Зубр, Bison) : 전세계 유일하게 벨라루스에서만 서식하는 유럽 사향소」를 형상화하여 만든 제품이 벨라루스를 대표하는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념품들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념품 코너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음

VIII. 무역관 오시는 길 및 주요 연락처

1. 무역관 위치 및 연락처

□ 민스크 무역관 위치 (민스크 시내 중심)



□ 무역관 오시는 방법

- 공항에서 찾아오시려면 택시 이용을 권장(시간은 약 40~50분 소요)
 - 공항에서 시내 들어오는 공항택시는 편도 40~50루블임 (2022년 5월 기준)
- 가까운 지하철역
 - 1호선 Площадь Ленина(레닌 광장), 역에서 무역관까지 도보 약 10분 소요
 - 3호선 Площадь Франтишка Богушевича, 역에서 무역관으로 직접 연결

□ 무역관 연락처

- 주소: Commercial Section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e 509, 70 Myasnikova street, Minsk, 220030, Republic of Belarus
- 전화: +375-17-200-0168~0169, (인터넷) 070-7001-0610~0611
- 팩스: +375-17-200-0156
- 무역관장(김동묘) e-mail: kotra@kotraminsk.by
- 무역관장(김동묘) 휴대폰: +375-44-753-4088

2. 대사관 연락처

□ 駐벨라루스 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 주소: 220002, Storozhevskaya street 10, Minsk, Belarus
- 전화: (대표) +375-17-215-0170~2, (영사과) +375-17-215-0173~4
 - (야간 및 공휴일 당직): +375-29-369-132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 팩스: (대표) +375-17) 215-0175, (영사과) +375-17) 215-0176
- 대표 e-mail: belemb@mofa.go.kr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by-ko/index.do>
- (참고) 주한 벨라루스대사관 홈페이지: <http://korea.mfa.gov.by/ko/>

3. 기타 유용한 전화번호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01	화재신고	102	경찰 및 범죄신고
103	구급차	104	시외버스 안내
105	철도 안내	106	공항 안내

[국제지수로 보는 벨라루스 (2022년 5월 최신 기준)]

자료작성기관	지표명	해당연도	세계순위 비교			
			벨라루스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비즈니스 환경지수	2020	49	5	28	64
The World Bank	Knowledge Economy Index 지식경제지수	2021	45	21	53	60
The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물류성과지수	2018	103	25	75	66
The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GDP) GDP성장지수	2020	78	10	11	56
UN	Global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전자정부 개발지수	2020	40	2	36	69
UN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2019 (report 2020)	53	23	52	74
The Legatum Institute	Legatum Prosperity Index 행복한 나라지수	2021	66	29	70	78
New Economic Foundation	Happy Planet Index 행복지수	2019	89	110	131	103
UNCTAD	B2C E-COMMERCE INDEX B2C 전자상거래 지수	2020	35	18	41	51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CT Development Index (IDI) 정보통신 발전지수	2017 (report 2018)	32	2	45	79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환경성과지수	2020	49	28	58	60
KOF Swiss Economic Institute	KOF Index of Globalization KOF 세계화지수	2021 (ranking for 2019)	74	35	51	45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부패인식지수	2021	82	32	136	122
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경제자유도지수	2022	135	19	113	130

자료작성기관	지표명	해당년도	세계순위 비교			
			벨라루스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INSEAD	Global Innovation Index 글로벌이노베이션지수	2021	62	5	45	49
The Economist	Global Food Security Index (GFSI) 국제 식량안보지수	2021	36	32	23	58
Boston Consulting Group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ssessment (SEDA)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평가계수	2020	47	21	53	68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글로벌 창업생태계 지수	2021	67	16	17	34
Universal Postal Union	Integrated Index for Postal Development (2IPD) 우정사업 통합지수	2021	14	27	20	33
MSU-CIBER	Market Potential Index (MPI) 시장 잠재력지수	2021	94	8	16	91
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Press Freedom Index 언론자유지수	2022	153	43	155	106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Global Peace Index 세계평화지수	2021	117	57	154	142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Global Terrorism Index 세계테러지수	2022	93	93	44	62
Charities Aid Formation	World Giving Index 세계기부지수	2021	121 (2018년)	110	67	20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Index 성평등지수	2021	33	102	81	74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글로벌경쟁력지수	2021	비회원	23	45	54
The World Economic Forum	Networked Readiness Index 네트워크준비지수	2021	비회원	12	43	53
World Economic Forum	Global Enabling Trade Index 무역환경지수	2016	비회원	27	111	95

[성희롱 예방 가이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되며, 그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즉 행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을 말한다.

‘성적 언동 및 요구’는 신체의 접촉이나 성적인 의사표현뿐 아니라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설사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한다.

□ 성희롱의 대표적인 사례는?

- 1) 여성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2) 여성의 특정 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행위
- 3) 야한 농담을 하는 행위
- 4)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 5) 허리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 6) 안마를 해준다고 어깨를 만지는 행위
- 7)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는 행위
- 8)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행위
- 9) 업무 중 의자를 끌어와 일부로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10) 고의적으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

□ 통역원에게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 주세요!

- 1) 현지인(or 한국인) 사귀어 봤어? 너 정도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 2) 끝나고 한 잔 할까? 너 나하고 만나서 저녁 같이 할래?
- 3) 나중에 내 생각나면 연락해
- 4) 며느리 삼고 싶다 등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